

# 건축사 - 사회의 지도자, 역사의 창조자

Architects- community leaders, the creator of history

focus

건축사는 사회의 지도자이며 역사의 창조자이다.

고(故) 김종업 선생이 28년 전 「건축문화」 지와의 인터뷰에서 건축계의 숙제에 대한 건축사들은 어떤 노력이 필요 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강조하신 말이다. 선생은 건축사들이 좀 더 창의력을 발휘하고 피눈물 나는 노력을 안 해왔음을 질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건축 단체의 위상도 중요함을 역설 한다.

외국의 경우 큰 역할을 하는 건축 단체는 대개 하나이고, 이 단체가 국내적으로 법령의 개정이나 입법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대외적으로도 한국 건축계의 위상을 높인다는 점도 바랄 나위가 없을 것이다.

어디선가 많이 들은 말이지 않은가? 또한 얼마 전에 부결된 어느 제안이 생각나진 않은가?

취재차 많은 곳을 다니며 귀동냥을 하다보면 외환위기 시절보다 어려운 상황이 일어난다. 승자 독식 사회란 말이 구구절절이 와 닿는 곳이 건축계만큼 인 곳은 없다. 과거 작가 의식을 가지고 노력하던 많은 건축사들이 학교나 대형 건축사사무소에 들어가 안이하게 지낸다는 말도 심심치 않게 듣는다. 아틀리에 형태의 건축사사무소에서는 인력난도 심하다 한다. 갓 졸업한 학생들이 설계 사무소를 선택할 때 대형 사무소만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의 이면에는 보다 불확실해진 경제 상황에 대한 여파일 수도, 또는 본능적으로 안정을 선호하는 인간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건축 저널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쪽에도 상당 부분의 책임이 있지 않나 하는 자책감을 지울 수 없다. 언제부턴가 건축 잡지에 외국 작가를 앞 다투어 싣고 있음을 기억할 것이다. 물론 거기에는 앞선 선진국(?) 의 선진 건축사(?)를 소개하여 우리 건축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기쁜 마음이 조금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영어 를 작품 설명이고 사진 설명 그리고 도면명에 이르기까지 가리지 않고 썼다. 이 작가가 왜 소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배경도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행태가 미래의 건축사인 학생들에게 일정 정도의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또는 이 땅의 건축사들에게 부정적인 자괴감을 심어준 것은 아닐까?

예전에 모시던 전 플러스 발행인인 원대연 씨도 필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최근 형식이나 겉보기로만 흐르는 저널의 양태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지적을 한 적이 있다. 내용이 있어야 해. 그의 강조점이 아직도 콧가에 남는다. 건축사 승효상도 이 땅의 건축사들을 세계에 제대로 소개하는 것이 저널의 역할이 아니겠는가 주문했다. 이 나라에서 20년간 자신의 이름을 걸고 노력한 건축사 승효상. 그도 지난 몇 년간 국내 건축 잡지에 작품 게재를 안 해 왔다. 하지만 모 잡지 편집장의 노력으로 그의 작품 몇 개가 실린다고 한다. 승효상뿐 아니라 이 땅에서 노력하는 건축사들을 우리가 먼저 귀하게 여겨야 한다.

우리 저널은 건축사가 사회의 지도자이며 역사의 창조자가 되는데 미력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려 한다. 또한 건축계가 활성화 되는 방안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여기에는 관련 되는 이들의 의견 모음이 아주 많이 필요하다. 관심 있는 이들의 질정을 기대한다. ■



이경일 / Lee, Kyung-il  
월간 건축문화 편집장  
(건축문화, 인테리어 전문지 bob, 격월간 디테일스, 격월간 설계경기 총괄 편집장)

#### 약력

- 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과
- 전 공간지, 플러스지, 피드, 건축인 poar 기자